독창적 예술혼 담은 스페인 전통

특별기고 "영화 '하몽, 하몽'은 예술이다"

최근 언론에서 '하몽,하몽'을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한 스페인 영화작품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논의의 초점을 예술과 외설의 문제에만 국한시켰다. 이 영화의 포스터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물론 자극적인 줄거리와 노골적인 성 표현 자체만으로 시아를 좁힌다면 충분히 외설적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작품전체의 흐름, 부분적 상징의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 스페인 사회라는 컨텍스트 등을 긴밀히 분석할때 이 영화는 단순히 외설적인 분류로 단죽할 수 없는 풍부하고 진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우리는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의 예를 '서편제'의 성공에서 찾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몽,하몽'은 가장 스페인적인 영화다. 단 두 작품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고유한 문화와 현재와의 관련맺음 또는 재해석의 강도에 있다고 할까?

'서편제'의 경우 이미 희미하게 빛바랜 오래된 사진을 거대 먼지털고 현재의 우리앞에 보여주었다는 의미에서 현재와의 관련은 약하다고 본다. 이에비해 '하몽,하몽'은 진동적인 정서나 문화를 현재의 가장 큰 문제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재해석하고 있다.

'하몽,하몽'을 희미하게 재미있게 감상하는데 가장 스페인적, 민중적인 자유와 본능의 격렬한 표현으로 유명하고 프랑코 왕당파에 의해 암살당한 스페인의 현대 시인, 극작가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까(1898~1936)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의 1919년 작품, '달과 죽음'이란 시의 일부를 보자.

달은 상아의 이빨을 갖고 있다/
얼마나 오래됐고 슬픈 얼굴인가/
바짝 마른 강 바닥이 있다.
푸르름이 없는 들판
그리고 시든 나무들
둥지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죽음의 부인, 주름살진 얼굴,
버드나무들 사이로 걸어간다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남창과
먼 공상을 가진
새깔을 팔면서 간다
밀남과 폭풍의 마치 요정 이야기처럼
사악하고 일을 읽히게 만드는 남창

펜티회사 사장 부인인 꼰치따는 바로 이 달이요, 죽음의 부인이고 하몽(돼지 넓다리 훈제 고기) 배달원인 라몬은 바로 먼 공상을 가진 —신분상승— 그리고 부인의 육욕을 충족시키는 남창인 것이다. 이 부인에 의한 거짓과 술수로 일이장 스페인적인 것들이 나온다.

또한 미국 문화 또는 현대 상업 문화의 상징인 코카 콜라, 벤츠 자동차, 대형 화물 트럭, 고속도로 등이 나오는데 코카콜라 깡통이 찌그러진채 호세 루이스의 소변 세례를 받고 꼰치따의 벤츠는 라몬에 의해 상징이 벌어져 나가고 하몽에 의해 마구 찌그러진다. 부엌안가 격렬하게 현대 상업 문화를 비판, 저항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꼰치따도 여성이고 실비아도 여성이다.

그러나 실비아는 임신 중으로 페스티발에 참가하고 있다. 그녀는 남성들에 의해 억압당하면서 성적 불만도 삭히면서 오직 벤츠, 진주 목걸이로 상징되는 부와 행복의 허상을 과감히 깨뜨리는 —영화의 처음과 끝에 진주 목걸이가 알알이 흩어짐— 현대 스페인 부르조아 여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같은 리비도 욕구가 오랫동안 충족되지 못하는 동안에 이미 노이로제 상태에 빠져있어 외디프스적 무의식에 따라 아들의 여상적인 대역, 라몬을 찾아 그동안 목말라 했었던 —영화 내내 보여지는 금이 쩍쩍 갈라진 대지와 풀 한포기 없는 삭막한 광야, 이것은 스페인 까스띠야 지방의 실제 지리적 환경이고 또한 금욕적, 비생명적 스페인 전통, 공식 문화의 상징이다— 욕구를 실컷 맛 보지만 이미 정해진 규격에서 벗어난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보복에 의해 운명적으로 비국으로 끝난다.

그녀의 행위는 마치 항문에 마늘이 박힌 암퇘지의 난뵙이 고속도로의 질주하는 화물 트럭(현대 상업 문화)에 의해 저지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즉 꼰치따는 얼핏 보면 사악한 가해자인 것 같지만 사실 라몬, 호세루이스, 실비아와 함께 피해자인 셈이다.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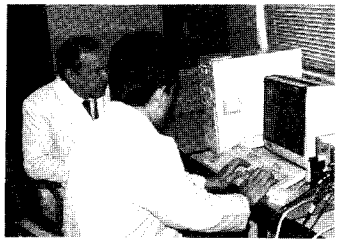
국외자, 방관자로 빠져있는 이기적인 아버지, 그리고 마식축구 TV 중계에만 열중하는 소시민 아버지를 양산하는 현대의 상업 문화이다. 따라서 이 영화는 수준높은 페미니즘 영화이다. 또한 아버지도 고속의 경쟁 속에서 남성다운 매쟝이 거세된 불쌍한 남성이란 생각을 하게되면 이미 우리에게 야성과 순수한의 세계는 정말 먼 '요정의 이야기'가 된 것일까? 결국 이 영화를 외설적인 성의 해방만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미 15세기에 르네상스적 메세지를 담은 '셀레스띠나'라는 소설에서 대담한 육체적 사랑을 궁정한 전통에서 시작하여 현대 미술, 음악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예술혼을 불태워온 스페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편린을 이 영화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안 태 환
〈외대강사·서반아어〉

우리학교 연구A

①레이저공학 연구소



레이저공학은 레이저광과 물질 또는 생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을 규명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종합과학이다. 연구개발의 대상분야는 광에너지, 분광학, 광전자 집적소자, 광정보처리, 광재료 등의 하드웨어 기술과 이것을 체계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다.

공과대 신협동에에 위치한 레이저공학 연구소(소장 이주희 전자과 교수)는 레이저광의 기초이론과 공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9월1일 설립되었다.

레이저공학 연구소는 4개의 연구부(물리학 및 광학, 화학 및 생체학, 에너지및 정보처리, 신소재 및 유체공학)에 우리학교 재직교수 23명이 겸직 연구원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간행물 발간, 연구개발, 학술강연회 개최, 타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의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연1회 발간되는 논문집 '레이저공학'에 각 연구부의 중요한 연구결과를 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레이저공학과 관련한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소련 과학 아카데미, 미국 라이스대학, 일본 게이오대학, 일본 공업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오존라이다 연구, 대기오염 측정용 라이다 개발 연구, 광정보 시스템 연구, 리스플레이 연구 등 중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아나함에서 열린(5월8일~13일) '94 레이저 및 광전자 분야에 대한 학술회의(CLEO :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에 직접 참가해 그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레이저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학술회의인 이번 '94 CLEO에서 백찬봉(대학원 박사3기·전자공학)씨의 'UV DIAL 시스템을 이용한 대부권 및 성층권 오존 측정'과 류한용(대학원박사7기·전자공학)씨의 '대기입자 XeF(C→A) 엑시머 레이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레이저공학 연구소는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은 입영하지 않고서 계속적인 연구활동을 할수 있다.

〈배종근 記者〉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기여코자 설립

국제학술회의 참가로 위용 과시

외설적 성해방 아닌 페미니즘 영화

민중적 자유·본능 차원서 이해해야

과학입국 위한 필독서②

박성래著 '한국인의 과학 정신'

우리는 과학 기술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속에 과학기술은 깊숙히 침투해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소위 첨단과학이라 불리는 컴퓨터, 우주과학, 유전공학, 반도체, 신소재 등에 관한 신기하고도 새로운 정보가 거의 매일 같이 매스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여러가지 부작용도 낳고 있다. 환경의 오염, 생태계의 파괴,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학기술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얼핏 매일 접하는 과학기술의 뿌리가 서양과학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과학정신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과학을 전연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과학적인 뿌리가 도무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책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성래교수가 지은 '한국인의 과학정신'이라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 박성래교수는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는 과학사를 전공한 과학자이면서 역사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 유산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사람들이 우리의 옛 전통은 모두 비과학적이고 서양것은 모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편견을 가진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한 국민의 과학정신을 보여주는 과학유산, 동양과학전통의 재평가, 그리고 과학에 얽힌 이야기 등 네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흥미롭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 대학에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양과목에 과학사가 개설되어 있으나 매학기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폐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이 과목을 신청하려던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학을 이해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년은 지구가 하루에 한번씩 자전하여 낮과 밤이 생긴다는 지동설을 동양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홍대용의 해이기도 하여 전통과학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뿌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 과학 유산의 올바른 자리매김 시도

민 영 기
〈자연대교수·우주과학〉

서시봉

'버려진 고향'

배주 화요일 여덟시 오분이면 어김없이 방영되는 TV프로가 있다. 문화방송의 최장수 프로이자 간판프로인 전원일기이다. 이 프로는 그간 수많은 연출가와 극작가의 고민과 시도를 포용하여 10년이 넘게 방영되면서 농촌을 소재로 한 프로로는 보기드물게 장수한 프로이고 또한 지속적이고 잔잔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드라마이다. 대대로 내려온 특징적이고 충동적인 감각성을 거냥하여 열광적인 인기를 지향하는 많은 청소년 프로,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과 질투를 다룬 애정드라마, 기업간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심도깊게 묘사한 기업드라마, 새로운 소재를 찾아 아심만만하게 시도되는 드라마들. 그 드라마의 홍수사이에서 주제조차도 잔잔하기 그지없는 전원일기가 갖는 매력은 무엇인가.

언제든지 아무때고 돌아가면 푸근히 맞아줄것만 같은, 투명한 공기와 매캐한 쓰레내음이 살아숨쉬는 고향의 풍경과 서정이 그것일 것이다.

현대의 도시민은 바쁘고 숨가쁘다. 모든 관심사는 출세와 제나름의 목표추구로 이어지는 경쟁과 승부에 있다. 사람사이의 갈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민의 그러한 관심사를 현실감있게 묘사하기 때문이지만 갈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또다른 새로운 재미를 요구하게 되고 평온함과 휴식을 제공할 수 없기에 그 수명이 비교적 짧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전원일기의 장면 장면은 이러한 승부에 얽힌 갈등을 내포한 도시민에게 한

번쯤 푸근히 안길수 있는 대자연으로 묘사된다. 비록 매주의 주제를 바탕으로 농촌의 현실과 갖가지 갈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순박하고도 정감어린 농심이 그 바탕이기에 그 갈등이 농촌에 대한 '안길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히 부족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농촌은 평화롭고 또 자연의 냄새가 물씬 붙어나기에 도시민의 돌아갈수 있는 고향으로 상징되었고 대다수가 여기에 만족하고 당연시 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왔을때 농민이 아닌 대다수의 우리에게 농촌은 여전히 '언제고 돌아가 푸근히 안길 수 있는 곳'인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지키겠다던 농산물 개방불가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고 농어촌의 발전상에 대한 계획은 그 윤곽조차 희미하다. 또 그나마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해 보겠다고 입안되었던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그간 중간유통마진을 챙겨왔던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조직적인 태업으로 용벽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일으킨 꼴이 되었다. 우루과이협상 조인을 철학하게 반대했던 농민들의 절규는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당장 피부에 심각성을 더해주는 중매인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조직적인 태업은 금세 그 실효를 거둔 것이다.

우리의 고향이라는, 아니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생존의식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의 농촌을 되돌아 보자. '있는 땅에 죽지 못해 농사를 지을수 밖에 없다'며 눈물짓는 주름살이 깊이 패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보자. 우리의 농정이 과연 지금과 같은 파행과 갈짓자 걸음을 걸어도 되는 것인가.

〈박경희 記者〉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초우량기업으로 가는 표지판

리더가 비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눈감고도 단숨에 그릴 수 있어야
비전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눈감고도 그릴 수 있는 비전"

리더의 말과 행동

리더의 언행에 일관성이 없으면 대다수 구성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동요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리더는 이것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놓은 뒤에는, 반드시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강유에나 일관성을 유지하라면 그것이 확고한 리더 자신의 생각이 제만 가능하다. 스스로 경영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단계별, 일정별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우고 그 비전에 이르는 전과정을 눈을 감고도 훤히 그려 낼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어느 국민학교의 보이 스카우트 모임에서 지도교사가 "이번 여름수련대회는 지리산에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장 "선생님, 지리산은 너무 높고 험하다던데요.", "어른들이나 간 수 있다던데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등등 대원들의 아우성이 대단할 것이다. 이때 만약 지도교사가 "하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안전한 설악수양소에나 갈까?"하고 흔들린다면 그는 오히려 대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지리산이 험하고 높긴 하지만 예로부터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신성시해 온 산이다. 신령님이 이미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알려 주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따라오면 보이 스카우트로서 지켜야 할 도원정신, 도전정신, 봉사정신을 기르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그런데 이 산을 오르자면 체력이 필요하니, 출발하기 1주일 전부터 매일 1시간씩 체력훈련과 산행준비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조스는 중간지점에서 출발하여 천왕봉에서 야영하고 연하봉을 거쳐 세석산장에서 1박한다. 마지막 날은 노고단을 거쳐 화엄사로 내려가는데 산행중의 일과는 시련보호운동, 사생대회, 길찾기대회 및 각종 게임 등이다"라고 이번 산행의 의의와 일정을 사세히 설명하면서 외욕을 북돋운다면 대원들은 신뢰감도 갖게 되고, '선생님한 잘 따라가면 우리도 지리산을 오를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에 넘쳐서 부풀 기대와 함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각자 열심히 준비할 것이다.

기업의 목표

기업에서 지향하는 비전의 목표는 일정 경영환동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초우량기업이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지향하되, 이상이 허황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처음에는 허황된 꿈이나 몽가능한 일로 생각했던 사원들도 한 해 두 해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한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모두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구사경회장 지(오히 이 김밥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